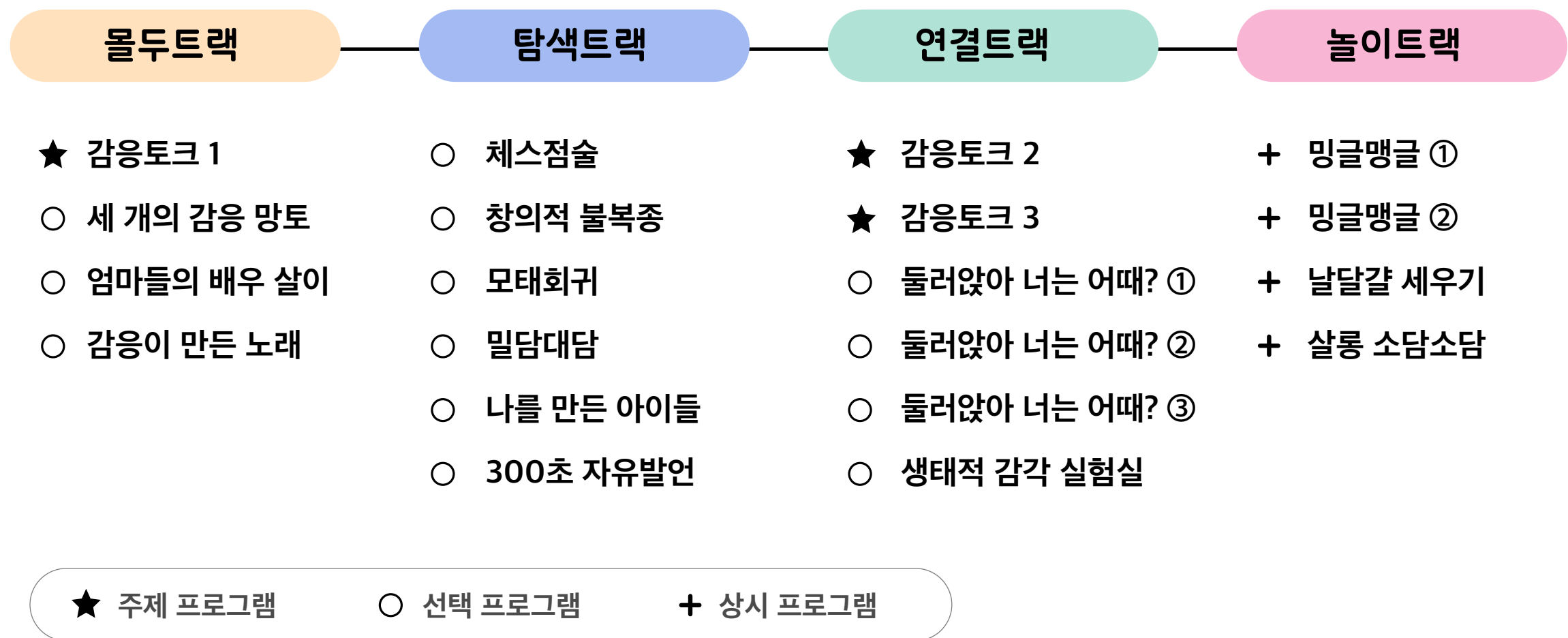


강아지 _____ 와
산책 _____ 중에
개똥봉투가 _____
없을 _____ 때



PROGRAM BOOK

<2021 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은 4개 트랙, 총 20개의 다양한 세션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31 DAY 1

장소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상시프로그램 (공간1986)
공간 1986	멀티벙커	○ 체스점술		★ 감응토크 1			○ 밀담대담		
	코워킹 스페이스						○ 창의적 불복종		
교육 1964	컨퍼런스홀		○ 세 개의 감응 망토						+ 밉글맹글 ①
	교육살롱								+ 밉글맹글 ②

11. 01 DAY 2

공간 1986	멀티벙커	○ 체스점술		★ 감응토크 2			○ 엄마들의 배우살이		
	코워킹 스페이스						○ 창의적 불복종		
교육 1964	컨퍼런스홀		○ 둘러앉아 너는 어때?①				○ 나를 만든 아이들		+ 날달걀 세우기
	교육살롱		○ 생태적 감각 실험실						+ 살롱 소담소담

11. 02 DAY 3

공간 1986	멀티벙커	○ 감응이 만든 노래		○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②		★ 감응토크 3			+ 300초 자유발언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 1964	컨퍼런스홀	○ 모태회귀							
	교육살롱				○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③				

프로그램 구성 / 일정	2
소담한 수다와 예술적 감각을 통한 깊은 마주함	5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에 관한 생각생각	6
물두트랙	7
[감응토크1] 예술교육은 감응이다 (feat.최진석)	
[세 개의 감응 망토] 예술교육과 감응이 이끈 세 개의 변화 경험담	
[엄마들의 배우 살이] 4.16 가족극단 어머니들의 삶 이야기	
[감응이 만든 노래] 감응을 중심으로 다시 보는 자장가 프로젝트 & 꼬마작곡가 프로젝트	
탐색트랙	9
[체스점술] 체스와 무용이 결합된 수상하고 의심스런 일일 점방	
[창의적 불복종] 몸이 거드는 토크	
[모태회귀] 교육가에서 다시 예술가로	
[밀담대담] 예술교육이 삶으로 들어올 때	
[나를 만든 아이들] 고무신의 경험과 질문하는 놀잇감	
[300초 자유발언]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연결트랙	11
[감응토크2] 재미있는 세상을 만드는 보살핌과 배움 (feat.조한혜정)	
[감응토크3] 어떤 감응을 상상하는가?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①] 내 아이의 첫 도둑질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술교육 잡담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②] 동사적 아카이빙 도서관과 마을 주민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술교육 잡담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②] 조금 다른 밴드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술교육 잡담	
[생태적 감각 실험실] 터치터치필필아하아하	
놀이트랙	13
[밍글맹글 ①] 숟가락 모아 식구 되어보기	
[밍글맹글 ②] 강아지게임	
[날달걀 세우기] 달걀을 일으키다 나를 일깨우기	
[살롱 소담소담] 어쩌면 세션들 보다 즐거운	
장소 / 오시는 길	15
신청 / 안내	16



예술교육 과정에 늘 담겨있지만,
언어로는 아직 낯선 '감응'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몰두트랙



예술적 감각과 사유를 나누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탐색트랙



예술교육실천가들의
실천과 상상이 어떻게 다른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결트랙



예술교육, 철학, 성찰 같은
무거운 짐은 잠시 내버려두고
가을의 상상캠퍼스, 수다,
놀이를 만끽할 수 있는

놀이트랙



소담한 수다와 예술적 감각을 통한 깊은 마주함

INTRO 1

2021년 <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의 첫해를 <감응하는 걸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경쟁과 효율의 논리는 점점 거세지고, 판데믹과 같은 위험은 누적되어만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예술은, 우리의 예술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술교육은 예술의 동사적 형태’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봅시다.

예술의 감응을 동작시키는 매개자로서 예술교육실천가들의 활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 나아가 일상과 인간성의 회복에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술교육의 어떠한 새로운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바쁘게 활동해온 예술교육실천가들이 만나 각자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각자의 철학과 신념, 활동과 성찰의 과정이 모여 예술교육실천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다음 걸음을 위한 영감을 나누고,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는 자리이길 희망합니다.

위드코로나 전환의 혼란이 예상되는 시점에 열릴 포럼을 준비하면서 지난 이년 동안의 만남들을 떠올려봤습니다. 발제자들만 카메라 앞에 모여 중계 모니터와 댓글 창을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누던 순간들의 공허함과 화면 너머로 토론의 정보만 전달받고 토론의 열기를 전달받지 못하던 순간들의 답답함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계를 기회로 삼아 작은 규모의 ‘소담소담’ 자리들로 깊이 있는 마주함의 시간에 집중하려 합니다. 언어를 통한 교감을 넘어 서로의 예술적 감각을 깨워 사유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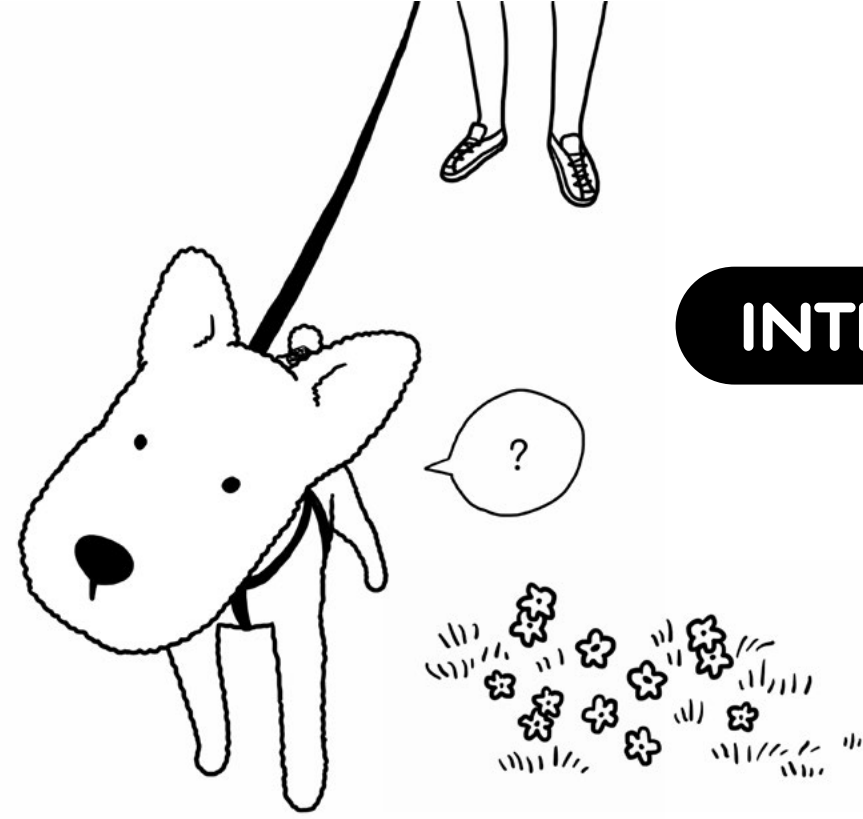
예술교육실천가들의 에너지가 북적북적 생성되길 기대하며 기획을 시작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동치는 에너지보다 여력이 없어 꺼내 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다른 호흡에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럼이 구성해놓은 공간과 시간이 참여자 모두의 호흡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름다운 가을 상상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 덧붙

포럼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럼 현장의 이야기들은 곧 온라인 노션 홈페이지 <https://bit.ly/2021-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를 통해 모든 분들께 공유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포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포럼에서 더 많은 분들과 그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에 관한 생각생각



INTRO 2

‘강아지와’는 예술교육 반려자를 뜻하는 말로 언어체계가 각기 다른 개별성들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단순하게는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지만, 각자의 관점과 감각 그리고 취향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과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강아지처럼 코와 귀로 보는 시선이나 땅굴을 파는 독특한 언어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소통의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둬야만 조금이나마 타자의 의중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산책 중에’는 미지의 시공간을 동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서로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며 리듬이 어긋나지 않는 싱크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는 상대를 배려한 씬, 입장을 고려한 양보, 힘을 합치는 연대의식 등이 연동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길 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느슨하지만 연결된 개줄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의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 탐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끈을 풀어버리면, 순간 모든 문제들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똥봉투가 없을 때’는 계획에 없던 상황이나 우연한 사건에 휘말린 물리적 신체성과 심리적 동요 그리고 멘탈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형 문구입니다. 개똥이라는 물질은 생리적 아웃풋의 한 형태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팬데믹은 물론 그 산물인 비대면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의 메타버스 같은 낯선 이물질의 침습을 은유합니다. 이것들은 외계생물체처럼 신화적으로 나타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적 상황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바뀐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가능성과 불가능성들이 어찌면 개똥같은 말은 아닌지 진지하고 유쾌하게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 덧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문명에서 야생의 세계를 맛보는 행위이자 늑대개의 DNA가 기억하는 세계를 환기하며 본능을 잃지 않으면서 주체성 회복을 위한 짧은 여행과 같습니다. 산책의 걸음은 경쾌하며, 마주치는 물질세계를 쿵쿵거리는 코와 날름거리는 혀바닥으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 맞닥뜨린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얇이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챈 듯이 말입니다. 또한, 강아지는 새로운 개체와의 만남에 선입견이 없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가가 서로의 엉덩이와 생식기까지도 거리낌 없이 말아보는 무례함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편견 없이 다가가고 예의를 갖추되 호기심을 잃지 않는 습성이야말로 우리 예술교육실천가들이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몰두트랙은 예술교육 과정에 늘 담겨있지만, 언어로는 아직 낯선 ‘감응’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응토크1]에서는 ‘감응이란 느끼고 호응하는 것, 새로운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또 다른 관계의 형성을 촉발하는 힘의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감응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문학평론가 최진석과 함께 감응과 예술교육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참여자 모두가 함께 걸어갈 <감응하는 걸음들>을 상상해보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선언문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세 개의 감응 망토]에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담긴 감응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예술교육실천가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셔 직접 이야기를 듣고 각자가 경험한 감응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엄마들의 배우 살이]는 예술교육과 함께 배우가 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세월호 어머님들과 어머님들과 모든 과정을 함께해온 연출가 김태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감응이 만든 노래]에서는 자장가 프로젝트의 장한솔,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의 소수정과 함께 참여자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 창작을 진행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감응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예술교육 실천가는 그 감응을 어떻게 촉발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SESSIONS]

<p>[감응토크1] 예술교육은 감응이다 (FEAT. 최진석)</p> <hr/> <p>예술교육 현장에 담긴 ‘다른 삶을 향해 난 문을 여는 예술의 감각 혁명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예술과 예술교육이 지닌 보살핌과 치유의 힘을 ‘감응’이란 개념으로 논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감응에 관한 생각을 모아 <감응하는 걸음들>을 함께 걸어 나가기 위한 방법과 지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의 초안을 함께 작성할 것입니다. 이 초안은 3일 동안 포럼에 직접 참여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더하는 예술교육 실천가들과 함께 완성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p> <p>10. 31 / 13:00~15:45 공간 1986 (멀티벙커)</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발제 : 최진석 • 모더레이터 : 서지혜 • 퍼실리테이터 : 김태현, 임상빈, 주성진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 가능 인원 : 20명</p>
---	--

[세 개의 감응 망토]

예술교육과 감응이 이끈 세 개의 변화 경험담



예술교육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배우자가 상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처음 올라본 무대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20년을 함께한 부부 관계가 예술교육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자아발견', '관계 회복', '시선 확장'의 세 가지 키워드로 예술교육의 현장에서 감응을 통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한 세 쌍의 예술교육실천가와 참여자를 모셔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듣고, 포럼 참여자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감응이 이끈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0. 31 / 11:00~12:45
교육 1964 (컨퍼런스홀)

- 사회 : 김태현
- 패널 : 문병재, 고봄이, 안용세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엄마들의 배우 살이]

4.16 가족극단 어머니들의 삶 이야기



4.16 가족극단 세월호 어머님들을 모시고 예술교육과 공연 활동이 어머님들께 어떤 의미인지 귀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고 무너진 자신의 존재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연극을 통해 대중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 것입니다. 포럼 참여자 각자가 경험한 예술교육이 일상의 크고 작은 슬픔을 돌보고,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만들어 주었던 순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1. 01 / 16:00~17:45
공간 1986 (멀티빙커)

- 사회 : 고주영
- 패널 : 김도현, 김명임, 김순덕, 김태현, 박유신, 박혜영, 이미경, 최지영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감응이 만든 노래]

감응을 중심으로 다시 보는 자장가 프로젝트 & 꼬마작곡가 프로젝트



예술교육 속 창작과정의 감응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것일까요?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감응이 생성되고 작동하는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예술교육실천가의 역량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보는 시간입니다. 갓난아이를 위해 엄마들의 이야기로 자장가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해온 '자장가 프로젝트'의 작곡가 장한솔, 아이들이 스스로의 언어와 감각으로 작곡하는 과정을 함께해온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의 작곡가 소수정의 경험으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11. 02 / 10:00~11:45
공간 1986 (멀티빙커)

- 발제 : 장한솔, 소수정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탐색트랙은 예술적 감각과 사유를 나누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스점술]은 멀티빙커 공간에 그려진 체스판 위에서 무용수들과 함께 체스말이 되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다소 신빙성이 의심되는)점피에 맞춰 움직여보는 참여형 퍼포먼스입니다.

[창의적 불복종]은 예술교육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활동에서 느끼는 은밀한 즐거움과 창의적 불복종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모태회기]는 예술교육 활동과 예술창작 활동이 과연 다른 것인지, 예술교육 실천가는 왜 예술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예술작업으로 우리가 회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밀담대담]은 예술교육의 기획자, 실행자, 매개자, 향유자가 만나서 서로의 일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각자의 창틀을 앞세우고 앉아 이웃집 사정을 들여다보며 맞장구쳐주는 수다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과의 만남에 대해]는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교육 대상으로 바라보던 어린이를, 어린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들과 노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늙은 어린이 고무신 조재경과 함께 존재로 이해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300초 자유발언]은 포럼 참여자 모두가 스피커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교육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불평불만 등 무엇이던 상관없습니다. 1인 무대에 올라서 외쳐주세요. 목소리를 크게 더 크게 전달해 주세요.

[SESSIONS]

<p>[체스점술] ○</p> <p>체스와 무용이 결합된 수상하고 의심스런 일일 점방</p> <hr/> <p>체스점술은 끌림을 운명으로 풀어보는 매우 그럴싸한 신내림성 통찰 프로그램입니다. 눈에 띄는 사물과 개인의 미적취향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은 공교롭게도 체스의 상징과 움직임 법칙으로 설명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선택은 곧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체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강의와 64개의 고유한 체스말 그리고 무용수들이 개입하여 참여자들의 고유성을 이끌어내는 퍼포먼스로 진행됩니다.</p>	<p>10. 31 / 11. 01 (2회) 11:00~12:45 공간 1986 (멀티빙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임체스 • 무용수 : 주정현, 한대교, 정희엽, 박윤슬 • 안무기획 : 제한정 <p>◎ 인원 제한 없음</p>
--	--

[창의적 불복종]

몸이 거드는 토크를 통한 저항 근육 집단 트레이닝



처음 만난 사이, 가뜩이나 거리두기로 서먹해진 거리감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몸이 내포하는 온갖 가능성에 한껏 기대어 내밀한 토크를 시도해봅니다. 토크는 몸이 거두고, 몸은 움직임이 거두고, 움직임은 그날 만난 누군가가 거들지도 모릅니다. 나의 활동에서 발견하는 은밀한 즐거움은 무엇인지, 그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불복종을 위한 나의 창의적 발차기는 무엇인지,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기 이야기 안에도 들어가 봅니다. 문제해결이 아닌 근자감과 관종력 향상을 위한 저항 근육 트레이닝!

10. 31 / 11. 01 (2회)
16:00~17:45
공간 1986 (코워킹스페이스)

- 진행 : 제환정, 최서연
- 영상 : 박윤슬

◎ 신청 가능 인원 : 회당 12명

[모태회귀]

교육가에서 다시 예술가로



예술교육과 창작은 과연 다른가?, '예술강사는 왜 예술가와 다른 존재로 취급받는가?', '예술강사인 나는 다시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잠자리에 누워 자주하는 고민이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골메뉴들입니다. 물론 늘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서 나눠보면 '나의' 생각이 변화되거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예술성 회복에 관한 푸념을 토로해 봅시다.

11. 02 / 10:00~11:45
교육 1964 (컨퍼런스홀)

- 사회 : 임체스
- 패널 : 김동현, 노유미, 서상현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밀담대담]

예술교육이 삶으로 들어올 때



예술활동과 교육체험은 교육 참여자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까요? 예술교육의 쓸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예술교육 기획자, 실행자, 매개자, 향유자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요? 예술교육 실천가와 참여자가 연극적인 창틀을 사이에 두고 이웃집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때로는 맞장구 치고 때로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포럼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이야기에 이야기를 보태시겠습니까?

10. 31 / 16:00~17:45
공간 1986 (멀티벙커)

- 사회 : 신보경
- 패널 : 김민, 윤혜성, 김남진, 이영숙, 이연화
- 설치물 협찬 : 이소영 (<어두운 창가에 비친 사람은 누구인가?> 2021, 영상설치 부분)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나를 만든 아이들]

고무신의 경험과 질문하는 놀잇감



어린이들의 세계를 만나는 예술교육실천가들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함께 종종 낯설이 함께 합니다. 그 낯설에서 예술교육실천가는 즐거움도 배움도 얻지만, 질문도 마주하게 됩니다. 고무신 작가가 만나 가는 아이들의 세계를 들으며 각자가 이고지고 가는 이야기와 질문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예술교육실천가의 역할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할지를 그려봅니다.

11. 01 / 16:00~17:45
교육 1964 (컨퍼런스홀)

- 발제 : 고무신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300초 자유발언]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포럼 장소 한 편에 누구나 올라서 외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곳에 올라서는 순간 포럼 참여자 누구나 스피커가 됩니다. 예술교육에 관한 생각도, 불평불만도 좋습니다. 조금 높고 위험해 보이는 아시바 무대지만 서로가 올라서는 걸음을 지지해 준다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동료가 있다면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외쳐볼 만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더 크게 전달해 주세요. 모든 목소리를 기록해 더 많은 분들께 전하겠습니다.

상시운영
공간 1986 (앞마당)

- 발제 : 여러분
- 무대설치 : 장태산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연결트랙은 예술교육실천가들의 실천과 상상이 어떻게 다른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응토크2]에서는 인류학자, 미래교육 컨설턴트, 아트디렉터, 문화기획자의 눈을 빌려 감응, 보살핌, 돌봄, 교육, 예술교육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패널과 청중이 경계 없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인 피시볼을 통해 생각을 나눕니다.

[감응토크3]에서는 할 말 많은 예술교육실천가 4인의 예술교육에 대한 4색 상상을 만나 봅니다. 예술교육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막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림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예술교육실천가의 열망을 나눕니다.

[둘러앉아 너는 어때?]는 예술교육 동료들과 소소한 수다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특강에서 만나던 실천가들과 잔디밭에 둘러앉아 차를 나누며 이야기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이야기도, 말 안 듣는 막내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물론 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생태적 감각 실험실]은 인간 예술가와 비인간 예술가(미생물, 균류)가 협업하는 바이오해커 집단 라이스브루잉시스터즈클럽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각자의 몸에 깃들어 있는 생태적 감각을 일깨워 시민으로, 예술교육 실천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SESSIONS]

<p>[감응토크2] ★</p> <p>재미있는 세상을 만드는 보살핌과 배움 (FEAT.조한혜정)</p> <hr/> <p>잘 살아가는 삶을 위해, 또 삶의 위기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 예술은 어떤 협력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수많은 질의와 탐색 속에 놓인 '미래교육'에 대해 예술교육실천가들은 어떤 질문으로 역할을 상상하고 실천해갈 수 있을까요?</p> <p>미래를 준비시켜준다고 믿어왔던 학교 교육이 시대의 빠른 전환과 위기적 환경들을 직면하며 그 역할과 효력에 대해 질문 받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학자 조한혜정은 교육의 터와 삶의 터의 경계를 해체하여 고민과 실천을 탐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과 이기는 자를 위한 사회가 더 이상 잘 사는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돌봄과 배움이 갖춰진 시민들의 서로 돕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돌봄과 배움을 전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오랫동안 얘기해온 그녀는, 더 나아가 삶의 터전인 동네에 사는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학교가 되어줄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건넵니다. 여기에 각자의 영역에서 삶의 터와 학습의 터를 이으며 고민과 실천을 이어온 3인이 마주하여 서로의 관점과 현장을 논하며, 서로를 보살피는 삶으로의 전환에 협력과 동행을 위한 예술교육실천가들을 대화로 초대합니다.</p>	<p>11. 01 / 13:00~15:45</p> <p>공간 1986 (멀티벙커)</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발제 : 조한혜정 • 퍼실리테이터 : 서지혜 • 패널 : 김수향, 임재춘, 최소연 <p>© 신청 가능 인원 : 20명</p>
--	---

[감응토크3]



어떤 감응을 상상하는가?

꽤나 오랜 시간 예술교육을 살펴보고, 실천해온 4인의 예술교육실천가들은 예술교육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예술교육의 여러 모습에 대한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도 하고, 가능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환경과 처함도 있고, 예술교육을 통한 나의 열망도 있습니다. 사실 예술교육을 하는 우리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예술교육, 이런 상상이 가능해야 하지 않아?'에 대한 4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각자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나누어보겠습니다.

11. 02 / 15:00~17:45
공간 1986 (멀티벙커)

- 사회 : 서지혜
- 패널 : 김병주, 임상빈, 제한정, 최선영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①]



내 아이의 첫 도둑질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술교육 잡담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②]



동사적 아카이빙 도서관과 마을 주민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술교육 잡담

[둘러앉아 너는 어때? ③]



조금 다른 밴드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술교육 잡담

예술교육계 동료들이 모여 소소한 수다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삶의 고민부터 예술교육에 대한 고민까지, 개인의 취향에서부터 예술교육 철학까지 가을의 상상캠퍼스에서 소담소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전)생활적정랩 뽀빠의 활동가로 전)경기예술교육센터장으로 걸어온 예술교육계의 동반자 임재춘, 도서관을 터로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사유와 실천을 이어가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음악과 기술 그리고 마음을 더해 경계를 넘는 '두드림 밴드'를 이끄는 사운드 디자이너 천필재. 함께 나눠보고 싶은 소담스런 이야깃거리와 궁금함을 가득 안고 자리를 마련합니다. 어떤 분과 수다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십니까?

11. 01 / 10:00~11:45
교육 1964 (컨퍼런스홀)

11. 02 / 13:00~14:45
공간 1986 (멀티벙커)

11. 02 / 13:00~14:45
교육 1964 (교육살롱1)

- 퍼실리테이터 : 임재춘, 박영숙, 천필재

◎ 신청 가능 인원 : 각 10명

[생태적 감각 실험실]



터치터치필필아하아하

'터치터치필필아하아하'는 만지고, 느끼면서 '아하!' 내가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워크숍입니다. 라이브브루잉시스터즈 클럽이 '터치'와 '필'과 '아하'로 나의 주변에 존재하는 인간, 비인간, 그리고 그 이상의 존재들과의 존재, 관계, 연결망을 감각하고자 마련한 워크숍입니다. 이러한 나와, 우리와, 나와 우리가 아닌 존재들의 '간극/사이'에서 채집, 관찰, 교감을 아우르는 터치터치, 필필, 아하아하의 순간을 각자 또 함께 포착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로서의 생태를 들여다보고, 그 안의 존재들과 호흡하는 방식을 질문해봅니다.

11. 02 / 10:00~11:45
교육 1964 (교육살롱1)

- 워크숍 진행 : 라이브브루잉시스터즈클럽

◎ 신청 가능 인원 : 20명



놀이트랙은 예술교육, 철학, 성찰 같은 무거운 짐은 잠시 내버려두고 가을의 상상캠퍼스, 수다, 놀이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하였습니다.

[밍글맹글]은 동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말을 건네는 놀이임과 동시에, 포럼의 ‘출석 확인’과 기념품 수령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자 가져온 숟가락으로 내가 먹고살고 있음을 알리고, 모여진 숟가락 작품으로 식구 같은 동료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기념품은 전체가 아닌 조각입니다. 나와 다른 조각을 가진 동료를 찾아 말을 걸고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선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레고 같은데, 아닌가요?

[날달걀 세우기] 밍글맹글을 통해 출석과 기념품 수령을 마치셨다면 날달걀 세우기라는 이번 포럼의 ‘통과의례’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날달걀을 골라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세우기에 도전해 보세요. 물론 세우지 못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달걀을 세우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료들과 날달걀을 세우고 의기양양해 하는 동료들을 둘러봅시다. 과연 그날 로비에는 몇 개의 달걀이 서 있을 까~요?

[살롱 소담소담]세션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코로나로 마주하지 못하던 동료들과 삼삼오오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마하키친 신소영 셰프의 다과와 음료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SESSIONS]

<p>[밍글맹글 ①] 숟가락 모아 식구 되어보기</p>	<p>+ 상시운영 공간 1986 (앞마당)</p>
<p>포럼에 오시는 길, 가슴에 숟가락 하나 품고 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포럼 장소 입구에 준비된 틀에 숟가락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날의 햇빛이 우리의 숟가락들을 비춰 반짝거리는 순간 동료들과의 마법 같은 만남이 시작됩니다.</p>	<p>• 설치 : 장태산</p> <p>◎ 현장 참여</p>

[밍글맹글 ②]

강아지게임



포럼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조립하면 예쁜 강아지가 되는 레고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완성하려면 동료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결핍을 메우고 채우는 보살핌, 교류와 교환의 연대, 온전한 나를 찾으려는 탐색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품이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와 꼬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를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시운영
공간 1986 (앞마당)

- 블록 디자인 : 임체스
- 패키징 디자인 : 빌롱잉스

◎ 현장 참여

[날달걀 세우기]

달걀을 일으키다 나를 일깨우기



콜롬버스 보다도 더 특별하게 달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정성이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이어서 모두에게 다르게 흐를 것입니다. 요령을 터득해서 줄줄이 날달걀을 세워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흐트러진 몸의 불균형이 불러일으킨 내적 동요를 마주하고 멘붕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자신의 몸을 생각보다 빠르게 마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칙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삶아서 먹거나 할 걸, 왜 내가 이 짓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급기야 깨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잠재된 폭력성이 살짝 얼굴을 내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나의 생명을 일으켜 세워보는 이 짧은 비언어적인 경험이 우리가 나눌 이야기거리에서 촉매제 역할을 기대합니다.

상시운영
공간 1986 (로비)

- 복치는 교수: 신은범

◎ 현장 참여

[살롱 소담소담]

어쩌면 세션들 보다 즐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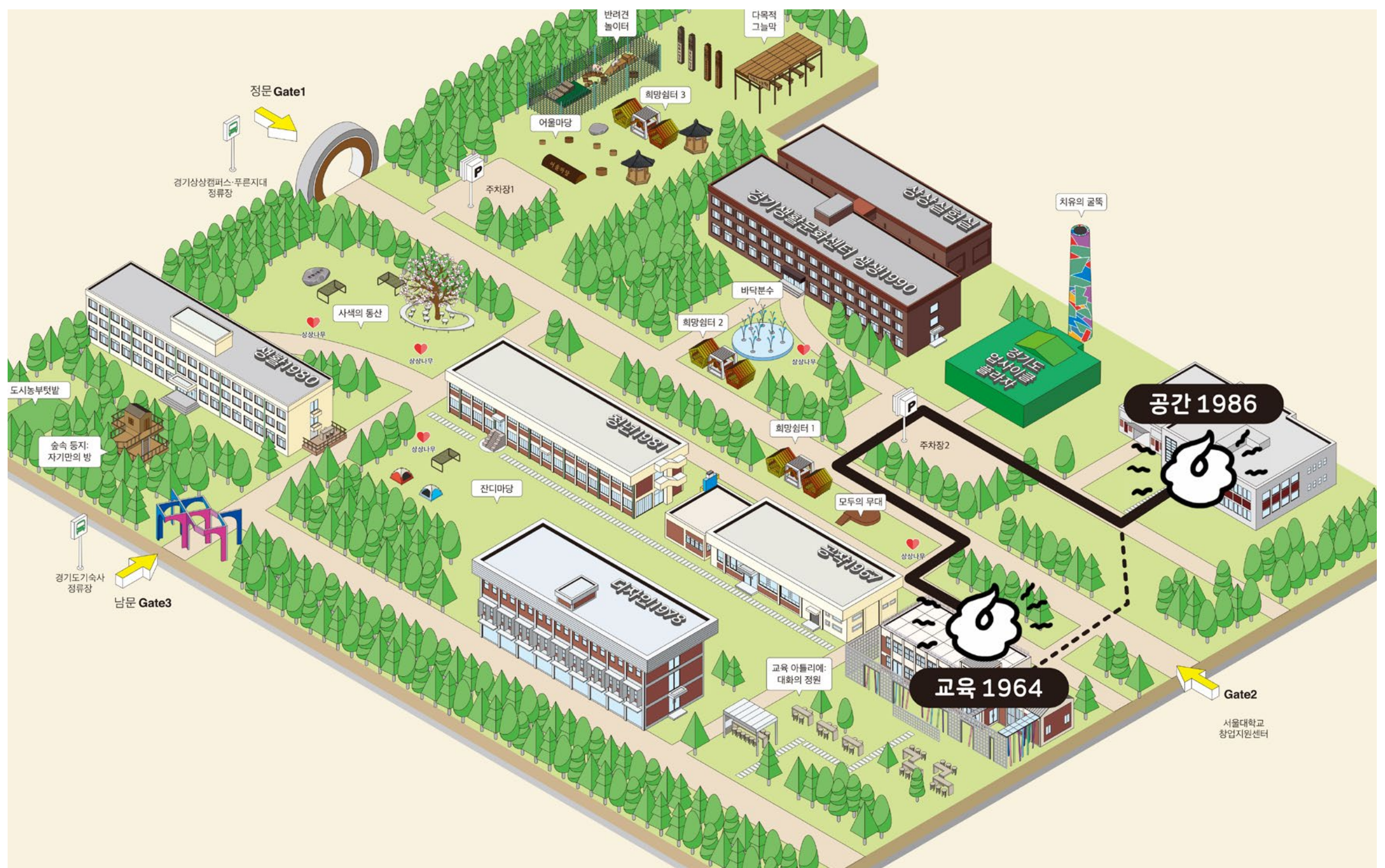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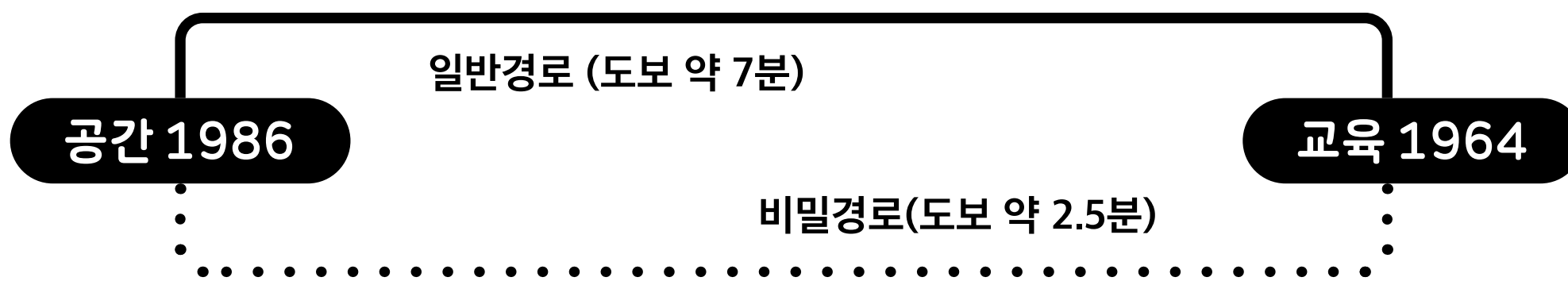
살롱 소담소담은 아무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행동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zoom 통해서만 만나던 동료들을 마주하고 앉아 소담소담 이야기를 나눠도, 세션에서 끝내지 못한 논쟁을 이어가도, 강아지 게임을 위해 조각을 교환하고 조립해도, 잠시 멍을 때려도 좋습니다. 자연을 닮은 다과와 음료를 가득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예산 집행 상황이나 앞서 참여한 동료의 식성에 따라 다소 양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시운영
공간 1986 (로비)

- 케이터링 : 마하키친

◎ 현장 참여

<2021 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은 경기상상캠퍼스의 두 장소에서 열립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른 장소 및 동선을 확인하세요.



경기상상캠퍼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지번주소: 서둔동 103-25)

◎ 주차 : 무료 / 제2주차장 이용(업사이클플라자 앞/뒤)

[버스 이용]

수원시내버스 : 88, 88-1, 720-2 '경기도기숙사' 또는 '푸른지대' 정류장 하차

[지하철 이용]

1호선 : 수원역 7번 출구 → 88, 88-1, 720-2 버스탑승 '경기도기숙사' 또는 '푸른지대' 정류장 하차

[택시 이용]

경기상상캠퍼스 또는 경기문화재단 본사(구 서울대 농생대 후문) 하차

신청/안내

[사전참여 신청]

[HTTPS://FORMS.GLE/5L1LUBQK64BPZKAB6](https://forms.gle/5L1LUBQK64BPZKAB6)

※ 신청은 2021년 10월 18일(월) 10시부터 10월 24일(일) 24시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내사항]

1. 이번 포럼에서는 현장 안내를 위한 배너나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전에 온라인과 SNS를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스텝들이 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름다운 상상캠퍼스의 자연을 위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참여인원은 포럼개최시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거리두기 3단계 기준으로 산정한 숫자입니다. 때문에 실제 행사에서 참여인원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Homepage]

[HTTPS://BIT.LY/2021_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https://bit.ly/2021_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

- ※ 홈페이지에는 발제자 정보 등 포럼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럼 현장에서 함께 예술교육에 대한 수다를 나누거나, 관심 있는 주제로 토론을 나눌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 포럼관련 문의는 포럼 홈페이지의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HTTPS://WWW.INSTAGRAM.COM/GTAF_2021/](https://www.instagram.com/gtaf_2021/)

- ※ 포럼과 관련한 소식과 차례로 공개될 사전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ROGRAM BOOK

< 2021 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 >

강아지와 산책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

2021. 10.31 - 11. 02 / 경기상상캠퍼스



2021 <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의 모든 홍보물은
노견일기 올드독 작가님의 원화에 빌롱잉스의 디자인을 더해 제작하였습니다.
푹코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